

리얼 크리스천(4)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움 (베드로 전서 2:11-25)

† 말씀 나누기

1.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더 선하게 실천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2. 최근 억울하거나 속상했던 일이 있었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나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반응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3. 민족의 명절 한가위가 있는 이번 한 주 가정과 일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기 위해 실천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 함께 기도하기

1.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상의 시선과 기준을 따라 살기보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임을 기억하며 욕심과 혈기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옵소서. 모든 관계 속에서 따뜻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믿음을 드러내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억울하고 힘든 순간에도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2.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부당한 일을 겪을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대로 반응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어디에서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리얼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 찬양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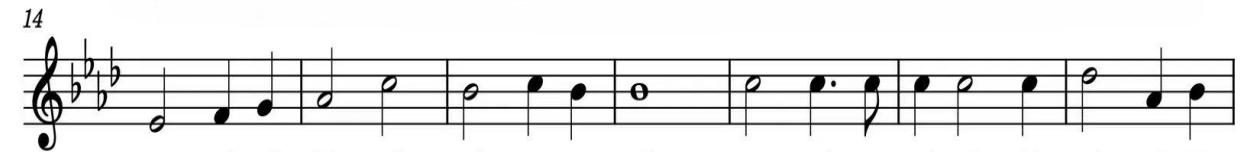
십자가를 질수 있나 (찬송가 461장)



십자 가 를 질 수 있 나 주가 물 어 보 실 때 죽기 까 지 따 르
너는 기 억 하 고 있 나 구원 받 은 강 도 를 그 가 회 개 하 였
걱정 근 심 어 둔 그 늘 너를 돌 러 덮 을 때 주께 네 영 맡 기
이런 일 다 할 수 있 나 주가 물 어 보 실 때 용감 한 자 바 울



오 리 성도 대 답 하 였 다 우 리 의 심령 주 의 것 이 니
을 때 낙원 허 락 받 았 다
겟 나 최 후 승 리 믿 으 며
처 럼 선 뜻 대 답 하 리 라



주 님 의 형 상 만 드 소 서 주 인 도 따 라 살 아 갈 동



안 사 랑 과 충 성 늘 바 치 오 리 다 아 멘

도입 | 세상이 보는 아름다움,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

우리 사회는 외모를 단순한 미용의 차원을 넘어 능력과 경쟁력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겉모습을 꾸미고 삶을 채워가지만, 오히려 마음과 영혼은 더 공허해지고 지쳐갑니다. 남들의 시선에 맞추어 살다 보면 결국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2천 년 전 로마 제국 아래에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관점에서는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과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을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움으로 초대합니다. 리얼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론 1 |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움은 바로 선한 행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믿음의 나그네입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욕심과 혈기와 자존심에 사로잡히기 쉽지만,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일터와 가정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봅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한가운데서 충성되고 흠 없는 삶을 살았고, 그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선한 행동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론 2 |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움은 억울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좋고 친절한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부당한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 믿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선을 행했음에도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세상의 방식으로 맞

서기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하던 중 시므이에게 모욕과 저주를 받았지만 직접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통함을 아시고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과 인내를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본론 3 |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움은 예수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겁니다.

누구의 뒤를 따라가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본이 되셨고, 앞서 발자국을 남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당하셔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셔도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받아내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뜻과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며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결론 |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뿌리내릴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운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인정하는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지 않고, 선한 행실로 살아가며, 억울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족과 이웃을 만나는 삶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품고 따뜻한 말과 선한 행동을 실천하며, 어려운 순간에는 감정대로 반응하기보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아름다움을 이루어 가는 리얼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